

# Dubai유, 27.24달러로 상승

석유공사, Brent유 29.08달러 ... 경기회복 기대에 공급부족 우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7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2달러 상승한 27.24달러를 기록했다. Dubai유는 10월29일 27.23달러 이후 9일만인 11월6일 27달러 선을 돌파했었다.

또 북해산 Brent유는 0.72달러 상승한 29.0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49달러 오른 30.78달러에 각각 마감됐다.

뉴욕선물시장(NYMEX)과 런던선물시장(IPE)에서도 WTI 및 Brent유 가격이 전날보다 0.2-0.5달러 정도 올랐다.

석유공사는 3/4분기 경기회복 전망, 난방유 공급부족 우려, 4/4분기 석유 수요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